

최근 「주방에서 지구를 보라」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화하라」라는
 말이 뜻을 새삼 읊어리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
 문제에 개입하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로 생학의 근원에서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고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주방은 생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오게 하는 나그네로 하는 곳이다
 생학의 근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학인은 주방의 주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에 필수적일 수 있다.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것은 주방의
 주인은 주부(主婦)만이 아닌 주부(主夫)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업화하고 있는 환경에 지각하고 있는 주체적 여성주부들이라. 주부중에서도
 전업주부(86년도 통계 676만 3천명)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이렇듯 도시
 의 부녀회, 학교 어머니회, 교회여성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지역단위의 활동 내용들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학의 근원에서 환경을 지키기」는 모든 생학인이 자각하고
 지각하고 매양의 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명명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는 분명히 다들 알고 있지만
 실천이 미흡한 것도 해아만 한다. 그렇지만 미흡한 것은 어떻게 하든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후세에 물려줄 지구환경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러한 일을 해내기 하기 보다는 지역단위의
 개관 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더불어 시민자치단체의 개입에 대해서 지역단위의 집단행동이
 민중운동의 장이 되기 때문에로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생학양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소비체계의 생활양식을 탈피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양이와 양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과의 대량생산체
 제에서 환경친화적 생산체제로의 전환이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못하는 「저기 흙으로
 만드는데 왜 여기까지 하는지」와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비양식을
 선진국의 생활양식을 선진화하여 뒤따라가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위한 소비체제로서 있는 미국 생활양식의 급진적
 양식양태를 비판할 일이 없겠는가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젠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을. 이젠의 보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있어야 대안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대가 없는 자부심을 양심으로 양육하는 차이에
놓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대기문제, 식량문제, 대도시
환경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화·지구화 문제로서는 어떤 문제든 지구, 생명권에 의한
심각한 후손의 위해, 영대대의 미래의 후손으로서의 미래의 문제에 의한 지구문제를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삶의 양식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에 있다. 예를 들어 물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수한 화합물은
다시 물을 다시 생명체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공동의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 제각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식의
생활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다른 문제와 화합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공간으로 식량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의복, 전기,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에너지 등으로 우리의 필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식량문제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2000년에 이르러 한국인들이 '생장의 한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간 사회의 생장의 추구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에
이르러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과 같은 것에 의해 붕괴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란!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구의 미래를 위하여
①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 점검 (eco-check)을 정기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재활용,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등의 소비행위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물품을 구입할 때
하루하루 버려야 하는 것, 꼭 필요한 것,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재활용이 가능한 것, 공해물질이 없는 것, 재료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기존에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구적인 경우 지능 활동을 위한 수천의 종로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구쓰기 운동은 지구에서 온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물
은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활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교육기관에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의무를 갖아야 한다.

② 지역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같이

다른 사람의 기쁨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기. 행복에 대한 생각의

생각은 대 반쪽짜리 것이 못된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비이치.
우리에게는 주어진 바와 같이 기성의 상식을 한계점으로 정하는 일에서
로 있다. 한계치인 상식도 역시 제로인 소비자의 상식처럼 크게 좌우하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때는 처지에는 높은 상식이 동등상등인양 그려
기어들이 동등기어인양 ⁵ 랑고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어들이 리얼 랑고내용과 같이 한계치이던 공리를 거둬서 물건을 사는데
자신의 패시를 베풀고 익혀가며 제대로 처리해 주는게 공해상리 기술 개발을
은 이룩한 한계대책은 비록한 것은 그렇기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²⁰ ²¹ ²² ²³ ²⁴ ²⁵ ²⁶ ²⁷ ²⁸ ²⁹ ³⁰ ³¹ ³² ³³ ³⁴ ³⁵ ³⁶ ³⁷ ³⁸ ³⁹ ⁴⁰ ⁴¹ ⁴² ⁴³ ⁴⁴ ⁴⁵ ⁴⁶ ⁴⁷ ⁴⁸ ⁴⁹ ⁵⁰ ⁵¹ ⁵² ⁵³ ⁵⁴ ⁵⁵ ⁵⁶ ⁵⁷ ⁵⁸ ⁵⁹ ⁶⁰ ⁶¹ ⁶² ⁶³ ⁶⁴ ⁶⁵ ⁶⁶ ⁶⁷ ⁶⁸ ⁶⁹ ⁷⁰ ⁷¹ ⁷² ⁷³ ⁷⁴ ⁷⁵ ⁷⁶ ⁷⁷ ⁷⁸ ⁷⁹ ⁸⁰ ⁸¹ ⁸² ⁸³ ⁸⁴ ⁸⁵ ⁸⁶ ⁸⁷ ⁸⁸ ⁸⁹ ⁹⁰ ⁹¹ ⁹² ⁹³ ⁹⁴ ⁹⁵ ⁹⁶ ⁹⁷ ⁹⁸ ⁹⁹ ¹⁰⁰ ¹⁰¹ ¹⁰² ¹⁰³ ¹⁰⁴ ¹⁰⁵ ¹⁰⁶ ¹⁰⁷ ¹⁰⁸ ¹⁰⁹ ¹¹⁰ ¹¹¹ ¹¹² ¹¹³ ¹¹⁴ ¹¹⁵ ¹¹⁶ ¹¹⁷ ¹¹⁸ ¹¹⁹ ¹²⁰ ¹²¹ ¹²² ¹²³ ¹²⁴ ¹²⁵ ¹²⁶ ¹²⁷ ¹²⁸ ¹²⁹ ¹³⁰ ¹³¹ ¹³² ¹³³ ¹³⁴ ¹³⁵ ¹³⁶ ¹³⁷ ¹³⁸ ¹³⁹ ¹⁴⁰ ¹⁴¹ ¹⁴² ¹⁴³ ¹⁴⁴ ¹⁴⁵ ¹⁴⁶ ¹⁴⁷ ¹⁴⁸ ¹⁴⁹ ¹⁵⁰ ¹⁵¹ ¹⁵² ¹⁵³ ¹⁵⁴ ¹⁵⁵ ¹⁵⁶ ¹⁵⁷ ¹⁵⁸ ¹⁵⁹ ¹⁶⁰ ¹⁶¹ ¹⁶² ¹⁶³ ¹⁶⁴ ¹⁶⁵ ¹⁶⁶ ¹⁶⁷ ¹⁶⁸ ¹⁶⁹ ¹⁷⁰ ¹⁷¹ ¹⁷² ¹⁷³ ¹⁷⁴ ¹⁷⁵ ¹⁷⁶ ¹⁷⁷ ¹⁷⁸ ¹⁷⁹ ¹⁸⁰ ¹⁸¹ ¹⁸² ¹⁸³ ¹⁸⁴ ¹⁸⁵ ¹⁸⁶ ¹⁸⁷ ¹⁸⁸ ¹⁸⁹ ¹⁹⁰ ¹⁹¹ ¹⁹² ¹⁹³ ¹⁹⁴ ¹⁹⁵ ¹⁹⁶ ¹⁹⁷ ¹⁹⁸ ¹⁹⁹ ²⁰⁰ ²⁰¹ ²⁰² ²⁰³ ²⁰⁴ ²⁰⁵ ²⁰⁶ ²⁰⁷ ²⁰⁸ ²⁰⁹ ²¹⁰ ²¹¹ ²¹² ²¹³ ²¹⁴ ²¹⁵ ²¹⁶ ²¹⁷ ²¹⁸ ²¹⁹ ²²⁰ ²²¹ ²²² ²²³ ²²⁴ ²²⁵ ²²⁶ ²²⁷ ²²⁸ ²²⁹ ²³⁰ ²³¹ ²³² ²³³ ²³⁴ ²³⁵ ²³⁶ ²³⁷ ²³⁸ ²³⁹ ²⁴⁰ ²⁴¹ ²⁴² ²⁴³ ²⁴⁴ ²⁴⁵ ²⁴⁶ ²⁴⁷ ²⁴⁸ ²⁴⁹ ²⁵⁰ ²⁵¹ ²⁵² ²⁵³ ²⁵⁴ ²⁵⁵ ²⁵⁶ ²⁵⁷ ²⁵⁸ ²⁵⁹ ²⁶⁰ ²⁶¹ ²⁶² ²⁶³ ²⁶⁴ ²⁶⁵ ²⁶⁶ ²⁶⁷ ²⁶⁸ ²⁶⁹ ²⁷⁰ ²⁷¹ ²⁷² ²⁷³ ²⁷⁴ ²⁷⁵ ²⁷⁶ ²⁷⁷ ²⁷⁸ ²⁷⁹ ²⁸⁰ ²⁸¹ ²⁸² ²⁸³ ²⁸⁴ ²⁸⁵ ²⁸⁶ ²⁸⁷ ²⁸⁸ ²⁸⁹ ²⁹⁰ ²⁹¹ ²⁹² ²⁹³ ²⁹⁴ ²⁹⁵ ²⁹⁶ ²⁹⁷ ²⁹⁸ ²⁹⁹ ³⁰⁰ ³⁰¹ ³⁰² ³⁰³ ³⁰⁴ ³⁰⁵ ³⁰⁶ ³⁰⁷ ³⁰⁸ ³⁰⁹ ³¹⁰ ³¹¹ ³¹² ³¹³ ³¹⁴ ³¹⁵ ³¹⁶ ³¹⁷ ³¹⁸ ³¹⁹ ³²⁰ ³²¹ ³²² ³²³ ³²⁴ ³²⁵ ³²⁶ ³²⁷ ³²⁸ ³²⁹ ³³⁰ ³³¹ ³³² ³³³ ³³⁴ ³³⁵ ³³⁶ ³³⁷ ³³⁸ ³³⁹ ³⁴⁰ ³⁴¹ ³⁴² ³⁴³ ³⁴⁴ ³⁴⁵ ³⁴⁶ ³⁴⁷ ³⁴⁸ ³⁴⁹ ³⁵⁰ ³⁵¹ ³⁵² ³⁵³ ³⁵⁴ ³⁵⁵ ³⁵⁶ ³⁵⁷ ³⁵⁸ ³⁵⁹ ³⁶⁰ ³⁶¹ ³⁶² ³⁶³ ³⁶⁴ ³⁶⁵ ³⁶⁶ ³⁶⁷ ³⁶⁸ ³⁶⁹ ³⁷⁰ ³⁷¹ ³⁷² ³⁷³ ³⁷⁴ ³⁷⁵ ³⁷⁶ ³⁷⁷ ³⁷⁸ ³⁷⁹ ³⁸⁰ ³⁸¹ ³⁸² ³⁸³ ³⁸⁴ ³⁸⁵ ³⁸⁶ ³⁸⁷ ³⁸⁸ ³⁸⁹ ³⁹⁰ ³⁹¹ ³⁹² ³⁹³ ³⁹⁴ ³⁹⁵ ³⁹⁶ ³⁹⁷ ³⁹⁸ ³⁹⁹ ⁴⁰⁰ ⁴⁰¹ ⁴⁰² ⁴⁰³ ⁴⁰⁴ ⁴⁰⁵ ⁴⁰⁶ ⁴⁰⁷ ⁴⁰⁸ ⁴⁰⁹ ⁴¹⁰ ⁴¹¹ ⁴¹² ⁴¹³ ⁴¹⁴ ⁴¹⁵ ⁴¹⁶ ⁴¹⁷ ⁴¹⁸ ⁴¹⁹ ⁴²⁰ ⁴²¹ ⁴²² ⁴²³ ⁴²⁴ ⁴²⁵ ⁴²⁶ ⁴²⁷ ⁴²⁸ ⁴²⁹ ⁴³⁰ ⁴³¹ ⁴³² ⁴³³ ⁴³⁴ ⁴³⁵ ⁴³⁶ ⁴³⁷ ⁴³⁸ ⁴³⁹ ⁴⁴⁰ ⁴⁴¹ ⁴⁴² ⁴⁴³ ⁴⁴⁴ ⁴⁴⁵ ⁴⁴⁶ ⁴⁴⁷ ⁴⁴⁸ ⁴⁴⁹ ⁴⁵⁰ <

농촌이 행복하길 바란다

후반기에 한해 되고

이러한 경제력의 증대의 환경은 물론 저항적이며 독선적인 데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주인의 태도를 위대한 개명행위를 입양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 있어 주인의 요구를 봉쇄한 데서 비롯되리라 보아야 한다. 인간환경을 통해 이 정부나 행정기관제를 통해 환경행위를 전개해 왔던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는 환경운동이 대안제외적인 활동을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정부조직이나 주민조직
이 생활행동조직을 통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생활행동
조직, 유식자까지 포함하는 생활행동조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R로 인한 폐해와 유익에 대한 유대인의 동향을 조사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주민의 생활행동 조직을 위한 관계
를 형성하여 공동체적 이치와 내수 위기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 이다. 유익한 환경행동조직인 생활행동 조직을 위한 일차적인
관계는 바로 유대인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치원의 시반까지 시를 가르쳐 주신데 유년기의 한글교육으로 (바쁘고 바빠서) 불행히도 36쪽의 한글강제에 대한 시각시각도 펴두지 못하.

출발 12월 10일 5시 30분 102호 타고, 3시 30분.

가림 생활의 상경인 주방에서 신체를 병행하는 힘이 나쁘다 하소
 의생부들에게 의해서 생명이 생기는 계층이 주방에서 밖에. 인제 많은 문제는 이들에게
 그들의 능력 발휘를 제약을 많이 하여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의생부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키다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3:00 회동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의 뜻을 새삼 음미하게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활인은 주방의 주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일 수 있다. 분명하게 해두고 싶은 말은 주방의 주인은 주부(主婦)만이 아닌 주부(主夫)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환경을 지키고 있는 주된 세력은 여성인 주부들이다. 주부중에서도 전업 주부(1986년도 통계 6백76만3천명)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 학교의 어머니회, 교회여성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지역단위의 활동 내용들이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키다'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며 응분의 비용부담도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환경과 후세에게 물려줄 지구환경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더불어 시민자치시대의 개막에 대비해 지역단위의 집단활동이 민주훈련의 장이 되기 때문에도 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혁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활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의 물질만능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반성하는 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안이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게 한 고도의 대중소비사회는 인간에게 환경파괴라는 부작용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 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하며 뒤따르기에 안간힘을 써오고 있다. 풍요함과 편리함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삼은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던 일이 었그제의 일이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대기문제, 식품문제, 대두아(大頭兒) 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 산성우에 의한 삼림과 호소의 피해, 열대림의 파괴와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의한 지구 온난화 등이 지구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프레온은 편리하고 값이 싸며 이것보다 우수한 화합물은 다시 없다고 해서 발명가는 노벨화학상감이었지만 이 프레온은 오늘날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탄 받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양식의 반성없이 제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프레온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화학물질들을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근간은 석유문명의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문명은 비누를 비롯해서 의복, 전기 자동차의 가솔린 그리고 에너지 등의 생활 필수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온은 바로 석유 정제에 필요한 나트륨 생산의 부산물인 염소의 처리물이다.

20년 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과 자원, 에너지 그리고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대

인의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란?

우리 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해야 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①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Check)을 정기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 자원 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 지 점검한다.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품인 경우 전기절약형인가, 공해식품은 아닌가,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본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 개의 중고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

②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 앞장선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하는 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지도를 우선 만드는 것이다. 공해배출업소나 시설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떤 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며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를 비롯해서 교통망, 보안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휴식공간, 학교 주변환경, 하천 등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됐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작성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계획의 제28장에서는 각 지역을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의 21세기 행동계획'(Local Agenda 21)을 1996년까지 시민과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번 하는 것으로 끝이 ~~Q~~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거듭해서 그 지역의 환경의 변화를 비교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애항심도 높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분위기를 복원해 낼 수도 있다.

③동시에 광역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문제, 하천수질문제, 산성우문제, 녹지대보전 광역쓰레기 매립문제등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웃 지역과의 또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성취해 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과제를 해 낼 수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④중앙및 지방 행정부의 환경정책과 행정을 감시한다. 행정부의 조직중에서는 환경분야가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낙동강의 폐놀사건등에서와 같이 사건이 터지면 그 수습에 법석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결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환경관련법과 함께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의 환경문제가 국제정치의 중요의제로 그리고 그린라운드로 상징되는 국제경제의제로 부상하게 되어 정부는 환경정책과 행정의 재정비를 서둘러야만 한다. 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도 주민의 책임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⑤기업에 대한 환경감시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은 그리 만족할 만 한 것이 못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우리에게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

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 배출을 억제하며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등을 비롯한 환경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어느 단계까지의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저항적이며 폭로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주민의 피해를 외면한 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를 봉쇄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민간 환경운동체와 정부가 협력관계를 통해 환경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환경운동이 대안 제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의 시민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하며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시각시정도 필수적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이나 주민운동이 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무공해식품 직거래운동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운동등의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밝은 전망을 예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늘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바로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인식은 아주 중요하다.

앞서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 라고 했다. 가정생활의 상징인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하는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성주부들에 의해서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유지된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들에게 그들의 능력발휘를 제약없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일 뿐이다.